

SKT, 한국동물병원협회와

동물병원 대상 엑스레이(X-ray) 촬영법 교육 나서

**- 전국 수의사, 동물보건사 대상 엑스레이 촬영 및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하고 수준 높은 검사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엑스칼리버 사례와 같이 자사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 AI 대전환 선도할 것**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약식 사진은 행사 종료 후 2시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

**[2023. 4. 6]**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www.kaha.or.kr](http://www.kaha.or.kr))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영상진단 검사 교육을 제공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4월 6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KT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올바른 엑스레이 촬영법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엑스캠프(X Camp.)’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의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람과 달리 말을 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질병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진단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SKT는 설명했다.

SKT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동물병원 종사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영상 진단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T는 자사의 AI 기술이 사람을 넘어 동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동물 영상 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작년 9월 출시했다.

엑스칼리버는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진단 결과를 15초내에 제공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다. 특히 엑스칼리버가 질환을 탐지하는 정확도가 높고, 기존 엑스레이 장비 교체 필요없이 웹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높은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 덕분에 출시 약 반년만인 현재 전국 150여개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특히, SKT는 자사가 보유한 AI 서비스와 기술을 활용해 ▲고객·기술 ▲시공간(모빌리티, 메타버스) ▲산업(AIX) ▲Core BM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AI컴퍼니 비전 ‘AI to Everywhere’를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에서 밝힌 바 있다.

SKT는 올해 AI컴퍼니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AI 테크 기업들과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깝게 AI를 구현함으로써 모든 고객이 AI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엑스칼리버는 SKT의 AI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 라며 “SKT는 엑스칼리버의 진단범위와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펫 케어 시장을 키우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엑스캠프를 통해 동물병원의 엑스레이 촬영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정확한 영상 진단을 통해 동물병원들의 진료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이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함께 동물병원 종사자 대상 엑스레이(X-ray) 영상진단 검사 교육을 제공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4월 6일 체결했다.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이교혁 매니저(02-6100-3870)**

